종합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치안 유지

전북경찰청 '전년 대비 설 연휴기간 주요 범죄 · 교통사고 대폭 감소'

전북경찰의 도·시민 위한 기능별로 추진된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결과, 도심 주요범죄 및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며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치안대책 일환으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도심 범죄 취약요소 점검을 토대로 예방활동에 집중 했다.

이에 강 청장은 '귀금속점,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및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최근 범죄사례를 설명하며 신고·대처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기간에는 잠재된 갈등속에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강력사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기도 했다.

이외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 집중 대응에도 힘을 보탰다.

결과로는,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범죄 발생 없이 국민들이 명절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 유지 상태로 이어졌다.

주요 범죄 발생이 전년 설 명절 대비 하락(22.3%), 특히 절도는 큰 폭으로 하락(45.8%)으로 확인됐다.

연휴기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1.7%(60건→3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혼잡예상지역에 선제적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암행순찰차 및 헬기 등을 동원해 입체적 교통관리로 교통소통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주요 고속도로상 지정차로 위반 및 갓길위반 등 교통사고·정체요인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및 2차사고 등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전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41.7%(60명→35명), 부상자는 59.3%(91명→37명) 대폭 감소했다.

강황수 청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선제적 치안 활동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설 연휴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찰의 종합치안활동 기간 중 보내준 도민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토끼 조형물과 사진 찍는 시민들 계묘년 설을 맞이한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토끼 조형물과 사진을 찍고 있다.

마을 문제, 주민들 스스로 찾아 해결한다

전주시, 2월 7~10일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

앞으로 전주시 마을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정책으로 주민들간의 소통과 협력에 따른 마을 활력이 일어날듯 하다.

시는 마을계획 수립 분야 14개 동과 마을계획 실행 분야 21개 동 대상으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를 내밀어 공모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오는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동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마을계획 수립 2개 동과 마을계획 실행 8개 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계획 수립 분야에는 6,000만원, 마을계획 실행 분야에는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마을계획 수립 동은 평소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한 뒤 직접 마을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을 거쳐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의제는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계획으로 확정된다.

시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에 의한 웃음을 찾아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도시로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적극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으로 고용안정 돕는다

전주시, 31일까지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이하 전주형 퇴직연금)'의 2차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전주시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돕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에 매달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익률 목표치는 대략 3~4%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제도 신규가입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기준으로 월 급여 242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년간 퇴직연금 기업 납입금 10%를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고용안정유지 지원사업으로 퇴직연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오는 2월 중 중진공과 협약 이후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전주형 퇴직연금으로 중소기업은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 유도로 고용 및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주형 퇴직연금과 2월에 있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이용하세요"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 앱으로 받은 다음 신용카드로 납부

전주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은 다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면 고지서의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모바일 전자납부 신청시 고지서 1매당 250원,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출력과 발송에 따른 예산 및 노동력 절감, 자원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완산구 063-220-5301, 덕진구 063-270-6492)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송달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앱에 저장(도달)된 때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이고지서 발송 생략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공직생활 적응 위한 새내기 공무원 맞춤형 교육

전주시가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새내기 예비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발령 예정자 74명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교육 특강을 마련하며 주요내용으로 '직원복무, 복지, 예산, 회계, 새올·온나라, 보고서 작성법, 청렴, 민원응대법, 분임활동' 등 기본 행정 직무 내용으로한 공무원 생활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했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직자로서의 '공심(공공을 위하는 마음)'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는 물론, 관련 분야의 팀장이 직접 강의에 직접 나서 이해를 높였다.

이후 시는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공감소통 멘토링, 상시상담센터, 청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 시작을 앞둔 신규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보건소, 치매 노인 실종 예방 · 조속 복귀 돕는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지문 사전등록 등 실종 예방사업 추진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큰 만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고유번호 기입된 안심팔찌 및 목걸이 지급, 지문 사전등록 등의 실종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안심팔찌 및 목걸이 지원 사업을 올해 진행 예정이며, 이번 인식표에는 이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의류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이는 전주시가 환자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심팔찌와 목걸이에도 인식표와 마찬가지로 고유번호가 각인돼 있어 치매 환자가 실종했을 때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 환자 도움물품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